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현상을 ‘해체하여 읽는다’는 것은 그 현상을 해체하여 소멸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 관념을 해체하여 새롭게 조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공간을 해체하여 읽는다는 것은 공간을 창출하는 비가시적인 영역에 주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앙리 르페브르는 ‘건축학의 공간’, ‘문학의 공간’처럼 공간을 구분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공간을 파편화한다고 비판하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비가시적인 영역에 주목하여 일상생활과 사회를 포괄하는 공간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공간이 사회의 고유한 성격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이기에 모든 공간은 ‘사회적 공간’이라고 보았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추상적, 정신적 공간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공간을 생산하는 주체들의 의도에 따라 상호 작용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안된(conçu) 공간’, ‘체험된(vécu) 공간’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의식 구조 안에서 일정한 이론적 형태를 지닌 담론을 만들어 낸다. 과학자, 도시 계획자, 예술가 같은 전문가 집단은 한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이론이나 중시하는 가치에 근거해 ‘고안된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 공간은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이나 도시 계획의 도면, 지도 등에 투영될 수 있다. 냉전 시대에 서방 국가들은 공산권 국가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공산권 국가의 영토를 크게 확대해 왜곡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이념에 의해 고안된 지도의 공간은 대중들에게 공산권 국가의 위협을 각인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는 ‘고안된 공간’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체험된 공간’은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정신적으로 다양하게 재현되는 공간이다. 재현이란 외적 대상을 주관으로 조합하고 상상을 통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들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대를 각기 개별화하여 체험하는 것처럼 이 공간은 개인의 사고에 따라 각기 달리 체험되는 공간이며,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집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현재와 과거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시대별, 장소별로 ‘체험된 공간’이 지닌 유동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개별성과 유동성을 지닌 ‘체험된 공간’은 주민들의 집단적 정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들이 상호 작용하는 일면을 이언 보든은 일상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 주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심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엄숙한 구조물처럼 추상적인 담론을 형상화한 상징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뽐내곤 한다. 도심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엄숙한 구조물은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가치나 지배층의 담론에 의해 규범화된 일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행위를 통해 기존의 규범화된 공간을 상상력이 충만한 공간으로 바꾼다. 몇몇 서구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공간과 사람의 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해당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스케이트보드 통행 방지 장치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단적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행위와 이들의 캠페인은 지배층의 담론을 규범화하여 강요하는 수직적 질서의 ‘고안된 공간’을 ‘체험된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결국 ‘고안된 공간’에서 스케이틀보드를 타는 것은 규범화된 질서에서 벗어난 행위이며, 이들의 캠페인은 기존의 공간을 도시의 모든 주체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개별성을 누릴 수 있는 수평적 질서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저항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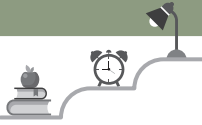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에서 ‘체험된 공간’이 지닌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일상 공간은 정해진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수동적 억압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이 존재하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르페브르는 일상 공간이 수동성과 창조성, 지배와 저항이라는 대립적 요소들의 병존이 만드는 모순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그의 말처럼 ㉠일상 공간은 억압된 ‘No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Yes의 공간’이자 삶이 확인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르페브르의 해체적 공간 읽기는 현대 도시의 일상 공간이 지배층의 담론에 의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주체가 개별성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의 이러한 공간 읽기는 오늘날 대중들에게까지 ‘도시에서 살 권리’를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9002-0082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르페브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공간은 공간을 생산하는 주체들의 의도에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 ② 일상 공간은 지배층의 담론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 체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 ③ 연극의 관객들이 무대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르듯이 ‘체험된 공간’은 유동성을 지닌다.
- ④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만든 ‘고안된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일상생활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회적 공간은 기존의 고정 관념에 의한 공간으로서 파편화된 공간이다.





9002-0083

## 02 읽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부의 칭기즈 칸 광장에는 몽골 제국의 정복자 칭기즈 칸과 사회주의 혁명의 영웅 수흐바타르의 동상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몽골 정부는 정권 수립에 공을 세웠던 수흐바타르 동상을 세워 광장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냉전의 붕괴 이후 몽골 정부는 민족성을 강조하여, 웅장한 건물과 칭기즈 칸 동상을 광장에 새로 세우고 광장의 이름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칭기즈 칸 광장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광장의 변화는 ㉠을 알려 준다.

- ① ‘체험된 공간’이 대중을 억압하는 이념적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 ② 특정 이념이 개인별로 상이한 ‘체험된 공간’을 물리적 공간에 투영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고안된 공간’이 억압한 대중의 일상적 공간이, 능동적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 ④ 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담론이 변화하면 ‘고안된 공간’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 ⑤ ‘고안된 공간’과 ‘체험된 공간’의 상호 작용이 주민들의 집단적 정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



9002-0084

## 0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 공간은 수직적 질서의 공간을 긍정함으로써 수평적 질서의 공간을 확인하려는 자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② 일상 공간은 규범화된 질서에 의해 억압되는 공간인 동시에 주체들이 개별성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③ 일상 공간은 규범화되어 강요된 공간과 연관되지 않은 새로운 공간으로, 지배층의 담론에 맞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④ 일상 공간은 수동성과 창조성을 지닌 상상력의 공간에서 정해진 질서에 의해 규범화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⑤ 일상 공간은 규범화된 담론이 부정되는 공간이지만, 창조성과 저항이라는 대립적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지배층의 이념을 강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